

조선시대 사찰본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의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 Study of *Bupjip Byulhangrok Jeoryo Byungip Sagi*
Published in Joseon Dynasty

송 일 기 (Song, Il-Gie)*

김 동 연 (Kim, Dong Yeon)**

◁ 목 차 ▷

- | | |
|---------------------|------------|
| 1. 서론 | 3.1 시기별 분석 |
| 2. 현전본 『절요』의 조사현황 | 3.2 형태별 분석 |
| 2.1 사집과 불서의 간행 | 3.3 계통별 분석 |
| 2.2 절요의 현전본 조사 | 4. 결론 |
| 2.3 절요의 간행지 현황 | <참고문헌> |
| 3. 현전본 『절요』의 서지적 분석 | |

< 초 록 >

이 연구는 조선시대에 사찰에서 간행된 『節要』의 현전본에 대해 서지학적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그 결과 조선시대 전국 사찰에서 간행된 『절요』는 현재까지 모두 27종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간행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조선 전기 13회, 조선 후기 14회의 간행을 보이고 있으나, 실은 16세기부터 17세기 사이의 2백 년 동안 25회의 집중적인 개판불사가 이루어졌고, 이 시기에 간행된 『절요』가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 같이 16-17세기 사이에 집중된 불서 간행 양상은 승려들의 강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이 시기 불교 중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행 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경상도 7회, 전라도 7회, 강원도 4회, 경기도 2회, 충청도 2회, 평안도 2회, 함경도 1회, 황해도 1회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경상도와 전라도의 간행이 14회로 전체의 5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간행 현상으로 보아 당시 『절요』는 특정 지역 혹은 종파의 구분 없이 승려들의 강원교육에 주요 교재로 채택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국의 사찰에서 다수 간행되었던 경향으로 보인다.

要語: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절요, 지눌, 선종서, 사찰본, 사집과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 중앙대학교 석사(ibirisu@naver.com)

접수일: 2016년 2월 25일 최초심사일: 2016년 3월 12일 심사완료일: 2016년 3월 25일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bibliographic research of *Bupjip Byulhangrok Jeoryo Byungip Sagi*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published in Joseon Dynasty. This Joseon Dynasty's edition *Jeoryo* (節要) that has been proven to exist 27 kinds of editions for now, and all that editions were published at Buddhist temple in the nation. When analysing publication of time, it was found 13 times of publication during early days of Joseon Dynasty and 14 times during late Joseon Dynasty. In fact, 25 times out of 27 times of publication are confirmed that these editions were published during 200 years, from 16th century to 17th century. Also, this amount of editions occupies whole publication's 93 percent. This *Jeoryo* that was intensively published in 16th, 17th century, seemed to have an important effect on Buddhist monk's education and revival of Buddhism. When analysing publication of region, 7 times of publication in Gyengsang Province, also 7 times in Jeolla, 4 times in Gangwon, 2 times of each Gyeonggi, Chungcheong, Peongan, and one time of each Hamgyong, Hwanghae. Of these, editions from Geongsang, Jeolla Province occupy whole publications' 50 percent. Of these tendencies, It seemed that *Jeoryo* published multiple times in Joseon Dynasty, and it is because the then *Jeoryo* became the monk's basic textbook, Also it was published without any specific regional, religious sect distinction.

Key words: *Bupjip Byulhangrok Jeoryo Byungip Sagi*, *Jeoryo*, Sajipgwa, Buddhist textbook, Zen Buddhism, Jinul

1. 서론

이 글은 고려 보조 지눌(1158-1210)이 말년에 저술한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의 현전하는 조선시대 판본을 대상으로 시기별, 지역별, 형태 분석을 실시하여 그의 서지학적 특징과 계통을 밝히는데 있다.

고려 중기 불교계에서 정혜결사 운동을 주도한 지눌은 禪·敎로 나뉘어 대립하는 혼란한 불교계를 다잡고, 집권계층과 결탁한 승가를 바로잡고자 선 중심의 定慧雙修, 頓悟漸修를 주장하며 그 핵심 사상을 후학에게 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진 생애를 거쳐 『勸修定慧結社文』, 『看話決疑論』, 『誠初心學人文』,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등의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이 중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이하 『節要』)는 지눌의 말년 저작인 만큼 선과 교에 대한 지눌의 종합적인 견해가 드러나 지눌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저술이다.

이처럼 지눌의 만년 사상이 담긴 『절요』는 그 내용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蓮潭有一을 비롯한 조선 후기 고승의 해설서도 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눌의 사상 및 수련법과 관련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판본의 현황 및 형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서지학적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눌이 편찬한 『절요』의 조선시대 판본을 대상으로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판본은 1486년 규봉암에서 간행된 판본을 기점으로 1701년 봉암사에서 간행된 판본까지 조선시대에 간행된 『절요』의 현전 판본 27종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한 판본을 기준으로 四集科 불서의 간행 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간행본의 존재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현전을 확인한 판본에 대해서는 간행의 시기별, 지역별 분석과 판식 분석을 통해서 계통을 파악하였다.

연구 대상 판본은 『全國寺刹所藏木板集』, 『韓國書誌年表』, 『朝鮮前期佛書板本』, 한국고전적종합목록 등의 기본 목록자료 및 선행연구를 일차적으로 활용하여 소재 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해당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각 대학교

와 기관의 고서목록, 해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실제 소장 여부를 조사하고 일부 개인 소장의 유일본을 직접 실사하였다. 이후 연구대상본의 서지적인 특징과 현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각 판본의 소장처를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까지 실물 확인이 가능한 현전하는 『절요』의 판본을 조사하여 각 판본의 형태적 특징과 간행 시기별·지역별로 분석하고 板心·行字數를 통한 판본 분석을 바탕으로 판본의 형성 계통을 밝히고자 한다.

2. 현전본 『절요』의 조사현황

2.1 사집과 불서의 간행

불교계의 강원 교육에 있어서 四集科 교재의 일종인 『節要』의 현전 판본에 대해 기존에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판본의 출현 가능성을 위해 먼저 사집과 불서의 간행 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서지목록을 조사하고, 실제 간기 등을 확인하고 <사집과종합서목>을 작성하여 비교분석에 활용하였다.

사집과의 강독 순서는 霽月 敬軒(1544-1633)이 1578년 금강산 내원암에 기거하며 후학을 가르칠 때 사집과 교재를 기초로 독서의 순서를 제시한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경헌은 『禪源諸詮集都序』(이하 『都序』)와 『절요』를 먼저 깨우쳐 불법의 기초를 다지고, 『高峰和尚禪要』(이하 『禪要』)와 『大慧普覺禪師書』(이하 『書狀』)로 佛法을 이해하는데 나타나는 갖가지 병을 타파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집과 불서의 학습 순서를 제시하였다.¹⁾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절요』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3종의 사집과 교재의 판본을 비교하여 혹시 누락된 판본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 결과, 다음의 <표 1>과 같이 조사 확인하였다.

1) 손성필,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3), 161.

<표 1> 사집과 불서의 간행현황

刊行年	刊行地		法集別行錄節要 并入私記	禪源諸詮集 都序 ²⁾	高峰和尚 禪要 ³⁾	大慧普覺禪 師書 ⁴⁾
1387	姜仁富	王室				√
1399	德奇寺	慶尙道 晉州			√	
1486	圭峰庵	全羅道 光州	√			
1493	花岩寺	全羅道 高山		√		
1501	鳳栖寺	慶尙道 陝川			√	
1511	大光寺	全羅道 順天				√
1511	天昇寺	全羅道				√
1525	深源庵	慶尙道 聞慶			√	
1528	龍門寺	全羅道 順天			√	
1531	松廣寺	全羅道 順天				√
1536	外水鉢	平安道 寧邊			√	
1537	神興寺	慶尙道 晉州	√	√		√
1537	表訓寺	江原道 淮陽			√	
1539	南臺庵	慶尙道 河東			√	
1543	空山本寺	慶尙道 永川				√
1545	西臺寺	全羅道 珍山			√	
1546	頭陀庵	平安道 平壤		√		
1546	石頭寺	黃海道 兔山				√
1553	楡帖寺	江原道 高城		√		
1554	楡帖寺	江原道 高城	√			
1565	雙溪寺	忠清道 恩津			√	

2) 최동원, “조선시대 간행된 선원제진집도서의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62-64.; 고희숙, “韓國佛教講院의 沙彌科·四集科 教材의 刊行에 관한 研究,” 『創立十周年 紀念論文集』 (청주대학교대학원 도서관학과, 1993), 247-250.

3) 김영선, “高峰和尚禪要 板本考,” 『서지학연구』 제14집(1997), 168.; 고희숙, “韓國佛教講院의 沙彌科·四集科 教材의 刊行에 관한 研究,” 『創立十周年 紀念論文集』 (청주대학교대학원 도서관학과, 1993), 247-250.

4) 배현숙, “大慧普覺禪師書 異本考,” 『서지학연구』 제5·6합집(1990), 170-173.; 고희숙, “韓國佛教講院의 沙彌科·四集科 教材의 刊行에 관한 研究,” 『創立十周年 紀念論文集』 (청주대학교대학원 도서관학과, 1993), 247-250.

刊行年	刊行地		法集別行錄節要 并入私記	禪源諸詮集 都序	高峰和尚 禪要	大慧普覺禪 師書
1566	雙溪寺	忠清道 恩津				✓
1568	天冠寺	全羅道 長興				✓
1570	神光寺	黃海道 海州	✓	✓		
1570	神興寺	慶尙道 晉州				✓
1570	安心寺	全羅道 同福		✓	✓	
1570	解脫寺	平安道 祥原	✓			
1571	普願寺	忠清道 瑞山			✓	
1573	普賢寺	平安道 寧邊			✓ ⁵⁾	✓
1574	西臺寺	全羅道 珍山	✓			
1574	月精寺	黃海道 文化				✓
1574	解脫寺	平安道 祥原		✓ ⁶⁾		
1575	空林寺	全羅道 高山				✓
1575	安心寺	全羅道 高山			✓	
1576	觀音寺	忠清道 報恩	✓	✓		
1576	安心寺	全羅道 高山				✓
1577	西臺寺	全羅道 珍山		✓		
1578	月精寺	江原道 江陵	✓			
1579	神興寺	慶尙道 晉州	✓	✓		
1582	上院寺	全羅道 益山	✓			
1583	普賢庵	江原道 襄州	✓	(雲峰 ⁷⁾)✓		
1588	雲門寺	慶尙道 淸道	✓			
1590	松廣寺	全羅道 順天			✓	

5) 해당 판본의 간기가 ‘萬曆元年癸酉孟秋月日妙香山普潤庵開板普賢寺留傳’과 같아 1573년 普潤庵에서 개관된 후 평안도 보현사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동 시기인 1573년에 평안도 보현사에서 『書狀』의 간행이 확인되어 동일한 분류로 묶기 위해 보현암이 아닌 보현사로 표기하였다.

6) 고희숙의 연구에서 1574년 전라도 조계산에서 『節要』가 간행된 것으로 소개하였으나, 실물 및 현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같은 시기의 『都序』 해탈사 간행본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해 해탈사 간행 『節要』의 기록은 『都序』를 잘못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7) 『都序』의 경우 天吼山 雲峰 판본이 1583년 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節要』의 연구대상본 중에 1583년 天吼山 普賢庵에서 간행된 판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간행본 모두 이후 楡岾寺로 이운되었다는 기록이 일치하였기에 同時期에 같은 사찰에서 간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동원, “조선시대 간행된 선원제전집도서의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62.

조선시대 사찰본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의 서지적 연구

刊行年	刊行地		法集別行錄節要 并入私記	禪源諸詮集 都序	高峰和尙 禪要	大慧普覺禪 師書
1603	能仁庵	慶尙道 河東		√		
1604	能仁庵	慶尙道 河東	√		√	√
1606	空山本寺	慶尙道 永川			√	
1606	栗寺	忠清道 公州		√		
1608	松廣寺	全羅道 順天	√	√		√
1609	松廣寺	全羅道 順天			√	
1612	內院庵	平安道 寧邊	√	√		
1618	栗寺	忠清道 公州	√			
1623	清溪寺	京畿道 義王	√	√	√	√
1628	龍腹寺	京畿道 朔寧	√	√	√	√
1630	靈泉寺	平安道 成川			√	√
1633	釋王寺	咸鏡道 安邊	√	√	√	
1634	天冠寺	全羅道 長興		√	√	
1635	龍藏寺	全羅道 泰仁	√	√	√	√
1639	天冠寺	全羅道 長興	√			
1642	月精寺	江原道 江陵				√
1645	月精寺	黃海道 文化		√		
1647	普賢寺	慶尙道 淸松	√	√	√	√
1662	表訓寺	江原道 淮陽	√	√	√	
1680	普賢寺	平安道 寧邊	√	√		
1681	雲興寺	慶尙道 蔚山	√	√	√	√
1686	澄光寺	全羅道 樂安	√	√	√	√
1694	龍興寺	全羅道 昌平		√		
1701	鳳巖寺	慶尙道 聞慶	√	√	√	√
1728	普賢寺	平安道 寧邊				√
1731	普賢寺	平安道 寧邊			√	
1740	普賢寺	平安道 寧邊	√	√		
합계			28	29	29	26

고려시대 1387년 왕실에서 간행한 것으로 알려진 『선요』의 판본을 시작으로 1740년 『절요』 및 『도서』가 평안도 보현사에서 간행되기까지 대략 29회의 개판이 있었다. 이 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節要』는 1740년 평안도 영변 보현사에서 간행된 추봉 사기 판본을 포함하여 총 28종이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都序』와 『禪要』는 각각 29종으로 비교적 많은 간행 사실을 확인하였고, 『書狀』은 26종의 판본 기록이 확인되어 가장 적은 종수를 기록하였다.

기존에 그 현전이 확인되지 않은 본인이 새롭게 찾아낸 『節要』의 판본은 1554년 유점사, 1582년 상원사, 1583년 보현암 간행본 등이 있으며, 그 경판의 존재만이 확인됐었던 1623년 청계사본의 경우 현전하는 인경본을 실물로 확인하였다. 또한 1740년 보현사에서 간행된 『節要』 판본의 경우 간기는 없고 국선이 쓴 발문만 존재하나, 같은 해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동국대 소장 1740년 보현사 간행본 『都序』에 간기가 확인되어 간행지 및 간행년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禪要』의 경우, 『도서』와 마찬가지로 1623년 청계사 인경본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또한 서지목록을 토대로 연구된 선행연구에서 『선요』가 1608년, 1609년 연이어 두 차례에 송광사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고전종합목록에 실물이 확인되는 것은 1609년 개판본만 확인되어 해당 판본만을 간행현황에 포함하였다. 그 당시 송광사의 개판 역량은 정점에 달했으나, 2년간 두 번의 서로 다른 개판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선행연구의 기록에서 1608년 간행본으로 추정되는 판본의 간선회주는 현전하는 1609년 간행본과 동일하지만, 각수 및 시주자 명단에서 많은 차이가 나며 1608년 간행본으로 추정되는 기록상의 간선, 회주 및 각수의 명단이 1608년 송광사에서 간행된 『절요』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목록상 기록에 오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603년과 1604년 능인암에서 간행된 『선요』의 판본의 경우에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두 번의 개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1603년 간행본의 실제 판본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1604년의 능인암 판본만을 간행현황에 포함하였다.

끝으로 『書狀』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1418년 간행된 판본이 하버드대학교 소장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실제 하버드 대학교의 온라인 검색 결과 간행년도 및 간행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된 바가 없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1573년도 평안도 보현사에서 간행된 『서장』 판본을 확인하였고, 1623년 청계사 간행본도 새롭게 확인하여 이를 추가하였다.

이처럼 앞의 <표 1>을 통해 사집과의 간행현황을 살펴보면, 간행 초기에는

사집과의 교재 중 한 종만을 선정하여 간행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15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도서』와 『절요』가 한 사찰에서 비교적 동시기에 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500년대 초반에는 『도서』와 『절요』에 비해 『선요』와 『서장』이 더 자주 개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동시 간행이 확인되는 곳은 경상도 진주의 신흥사로 1537년 『절요』, 『도서』, 『서장』이 모두 간행되고, 곧이어 2년 뒤 1539년 신흥사의 암자인 남대암에서 『선요』까지 간행되었다. 즉, 1500년대 초반에 진주 지방에서 사집과에 관련된 교재가 모두 2-3년 사이에 모두 개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개판불사는 하동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벽송 지엄이 사집과의 불서를 강학의 필수교재로 강조했기에 그 제자들이 그 뜻을 이어 간행사업에 적극 참여한 특징을 보인다.⁸⁾ 이러한 경향은 이후 산중으로 이동한 사찰계에 지속적으로 전파되어 1603년부터 1604년 동안 진행된 능인암 간행사업부터 사찰에서 사집과의 교재를 일시에 간행하는 사찰 간행사업의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더 나아가 이후 1608년 송광사, 1623년 청계사, 1628년 용복사, 1635년 용장사, 1647년 경상도 청송 보현사, 1681년 운흥사, 1686년 징광사, 1701년 봉암사, 1728년부터 1740년까지 평안도 보현사까지 9개의 사찰에서 사집과 간행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불서의 간행이 한 사찰에서 일시에 이루어진 경우가 점차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16세기부터는 서적 간행의 경향이 국가 주도로 간행되던 것에서 그 역할이 점차 지방으로 이관되어 재지사족이 지방 관아의 기반을 활용하여 간행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16세기 중반부터 지방 서원들이 자체적으로 서적 간행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간행을 실시하는 사회적 경향이 불교계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부족한 서적의 보급을 위해 각각의 사찰에서 보유하던 목판을 토대로

8) 송일기, 박민희, “智異山 所在 寺刹의 朝鮮時代 開板佛書 研究,” 『서지학연구』 제46집 (2010), 383-384.

자체적인 간행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역별 사찰이 힘을 합쳐 재원을 조달하고 목판 및 기술자를 보급하고자 하였을 것이다.⁹⁾ 그러나 그 목적에 있어서 같은 시기 상업출판이 급속하게 발달한 중국과 달리 공급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 서적의 간행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양상을 보인다. 때문에 서적이 민간에 확대되지 않고 사찰에서 승려들의 강학과 같이 목적이 뚜렷한 사집과 불서를 중심으로 간행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2.2 절요의 현전본 조사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23종의 판본과, 본인이 추가로 찾아낸 판본 5종을 포함하여 한문본 28종이 현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전 판본 현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각종 서지목록을 통해 소장처 파악하여 간행기록 및 소장처를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의 전국사찰문화재를 토대로 색출하고,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과 각 기관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통해 조사한 결과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4> 『節要』의 현전본 조사현황

번호	刊行年	刊行處	刊記	연구 대상본
1	1486	圭峰庵	成化二十二年丙午夏全羅道光州無等山圭峰庵開板	개인
2	1537	神興寺	嘉靖十六年丁酉孟夏慶尙道晉州地智異山神興寺開板	공인박물관
3	1554	楡岾寺	嘉靖三十三年甲寅夏金剛山楡岾寺開刊	화봉문고
4	1570	神光寺	隆慶四年庚午五月日平安道祥原地大靑山解脫寺開板深谷寺移留	국중
5	1570	解脫寺	隆慶四年庚午夏黃海道海州神光寺開板	불갑사
6	1574	西臺寺	萬曆二年甲戌五月日全羅道珍山山地西臺寺開板	동국대
7	1576	觀音寺	萬曆四年丙子夏俗離山觀音寺開板	개인
8	1578	月精寺	萬曆六年戊寅月日刊 江原道江陵地五臺山月精寺留板	규장각
9	1579	神興寺	萬曆七年己卯夏智異山神興寺開刊	국중

9) 손성필, “16세기 사찰판 불서 간행의 증대와 그 서지사적 의의,” 『서지학연구』 제54집(2013), 371-374.

조선시대 사찰본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의 서지적 연구

번호	刊行年	刊行處	刊記	연구 대상본
10	1582	上院寺	萬歷十年壬午年三月日益山郡龍華山上院寺開刊	영남대
11	1583	普賢庵	時萬歷十一年癸未仲春天吼山普賢庵開刊移鎮于楡岾寺	개인
12	1588	雲門寺	萬歷十六年戊子七月日慶尙道清道虎踞山雲門寺開板	동국대
13	1604	能仁庵	萬歷三十二年甲辰春智異山能仁庵開刊移鎮于雙溪寺	동국대
14	1608	松廣寺	大明萬歷三十六年戊甲九月日順天府曹溪山松廣寺重刊	국중
15	1612	內院庵	萬歷四十年壬子秋香山內院開板移普賢寺	개인
16	1618	栗寺	萬歷四十六戊午七月日洪公道公州地鷄龍山栗寺開板	원광대
17	1623	清溪寺	天啓三年癸亥四月日靑龍山清溪寺海藏	청계사
18	1628	龍腹寺	崇禎元年戊辰孟秋朔寧龍腹寺開板	관문사
19	1633	釋王寺	崇禎六年癸酉五月日咸鏡道安邊地雪峰山釋王寺開板	개인
20	1635	龍藏寺	崇禎八年乙亥八月日全羅道泰仁地雲住山龍藏寺開刊	송광사
21	1639	天冠寺	崇禎十三年己卯之夏刊刻…全羅道長興地天冠山天冠寺重刊	보림사
22	1647	普賢寺	順治四年丁亥七月日慶尙道清松土普賢山普賢寺重開刊	국중
23	1662	表訓寺	康熙元年壬寅秋金剛山表訓寺開板上	동국대
24	1680	普賢寺	康熙十九年庚申五月日妙香山普賢寺開刊	원각사
25	1681	雲興寺	康熙二十年辛酉五月日慶尙道圓寂山雲興寺開刊	동국대
26	1686	澄光寺	康熙二十五年丙寅四月日開刊板在全羅道樂安金華山澄光寺	동국대
27	1701	鳳巖寺	康熙四十年辛巳五月日慶尙道聞慶地義陽山鳳巖寺開刊	고려대
28	1740	普賢寺	乾隆五年庚戌(申)三月日平安道寧邊府妙香山普賢寺留鎮	개인

이와 같이 현전본 조사를 통해 <표 2>와 같이 조선시대에 간행된 『절요』의 판본은 총 28종이 현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1740년 보현사에서 설암 추봉이 分科를 붙인 私記 판본의 경우 설암 추봉의 해설서 성격이 강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총 27종의 판본을 대상으로 실물 자료의 확인을 포함한 현황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기의 표와 같이 조사한 판본의 경우, 간행연도별로 유일본 또는 희귀본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후 판본에 대한 소장 정보가 파악되어 해당 기관과 개인을 방문하여 직접 실물 자료를 실사하였다.

2.3 절요의 간행지 현황

고려시대 보조 지눌이 편찬한 『절요』는 조선시대에 전국의 사찰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널리 간행되었던 경향을 보인다. 특히 16세기 사찰이 산중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후학 양성을 위한 강원교육이 다시 활발하게 시행되자 四集科를 중심으로 한 교재용 불서가 다수 개관되는 경향을 보인다. 조선시대 전국 사찰에서 개관된 『절요』는 1740년 보현사 간행본을 제외하고 총 27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5> 『節要』의 간행 지역별 분석

刊行地	板本	刊行年	種數	비율(%)
江原	楡帖寺本	1554	4종	14.8
	月精寺本	1578		
	普賢庵本	1583		
	表訓寺本	1662		
京畿	淸溪寺本	1623	2종	7.4
	龍腹寺本	1628		
慶尙	神興寺本	1537	7종	25.9
	神興寺本	1579		
	雲門寺本	1588		
	能仁庵本	1604		
	普賢寺本	1647		
	雲興寺本	1681		
	鳳巖寺本	1701		
全羅	圭峰庵本	1486	7종	25.9
	西臺寺本	1574		
	上院寺本	1582		
	松廣寺本	1608		
	龍藏寺本	1635		
	天冠寺本	1639		
	澄光寺本	1686		
忠淸	觀音寺本	1576	2종	7.4
	栗寺本	1618		
平安	解脫寺本	1570	3종	11.1
	內院庵本	1612		
	普賢寺本	1680		
咸鏡	釋王寺本	1633	1종	3.7
黃海	神光寺本	1570	1종	3.7
	총		27종	100.0

상기의 <표 3>을 토대로 지역별 『節要』의 간행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에서 4회, 경기도에서 2회, 경상도에서 7회, 전라도에서 7회, 충청도에서 2회, 평안도에서 3회, 그리고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각각 1회씩 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각각 7회씩 간행이 확인되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두 지역에서 각각 25.9%씩 총 5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4종의 판본 간행이 이루어져 14.8%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평안도에서는 3종의 간행이 진행되어 11.1%의 비율을, 이외에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각각 2회씩 판본의 간행이 나타나 7.4%씩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함경도와 황해도에서는 각각 1종의 간행이 진행되어 각각 3.7%의 비율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절요』는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가장 많은 간행이 이루어졌고, 그 수가 전체 판본 간행의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다수 진행되었다. 비록 개판 횟수는 다소 적지만 전국 팔도에서 고르게 간행되었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고려 후기 전래되어 조선시대에 다수 간행된 『四法語』도 현전하는 판본 중 상당수가 16-17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된 양상을 보이며, 현전하는 판본 중 31% 정도가 전라도 지역에서 간행된 것으로 볼 때, 당시 지리산 부근의 사찰과 호남 우도를 중심으로 불서의 간행사업이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⁰⁾

그리고 간행지역별 간행 시차는 대략 강원도 36년, 경기도 5년, 경상도 27년, 전라도 33년, 충청도 42년, 평안도 55년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1620년대에 총 두 차례만의 간행이 확인되어 간행 시차가 가장 작은 경기도 판본을 제외하면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우가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어 아무래도 개판 횟수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10) 송일기, “사범어의 편찬과 유통,” 『서지학연구』 제63집(2015. 9), 80-81.

3. 현전본 『절요』의 서지적 분석

3.1 시기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1486년부터 1701년까지 약 215년에 걸쳐 간행된 『절요』 27종의 판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6> 『節要』의 간행 시기별 분석

구분	간행시기	판본	종수	비율(%)	
조선전기 (13종 49%)	성종	1486년 圭峰庵本	1종	4.0	
	중종	1537년 神興寺本	1종	4.0	
	명종	1554년 楡帖寺本	1종	4.0	
	선조	1570년	神光寺本	10종	37.0
		1570년	解脫寺本		
		1574년	西臺寺本		
		1576년	觀音寺本		
		1578년	月精寺本		
		1579년	神興寺本		
		1582년	上院寺本		
1583년	普賢庵本				
1588년	雲門寺本				
1604년	能仁庵本				
조선후기 (14종 51%)	광해군	1608년	松廣寺本	3종	11.0
		1612년	內院庵本		
		1618년	栗寺本		
	인조	1623년	淸溪寺本	6종	22.0
		1628년	龍腹寺本		
		1633년	釋王寺本		
		1635년	龍藏寺本		
		1639년	天冠寺本		
	1647년	普賢寺本			
	현종	1662년	表訓寺本	1종	4.0
	숙종	1680년	普賢寺本	4종	14.0
1681년		雲興寺本			
1686년		澄光寺本			
1701년		鳳巖寺本			
총			27종	100%	

상기 <표 4>의 간행 시기별 구분을 통해 『절요』의 간행을 분석해보면,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선조 재위기간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에 13종, 조선 후기에 14종의 판본이 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비교적 임난 전후로 분산 간행되었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진왜란과 그 이후에 간행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는 곧 『절요』의 간행이 임진왜란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수의 판본이 간행된 것을 시사한다. 오히려 중종대 중반인 1530년대부터 간행이 급증하여 임진왜란 이후까지 그 간행량이 지속되어 16세기 사찰 내 불서의 간행이 증가하는 사회적인 추세에 부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선조대 37%를 차지 할 정도로 많은 불서의 간행이 확인되었다.

이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15세기 후반에는 해당되는 판본으로는 1486년에 간행된 규봉암본 1종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16세기와 17세기의 200년 동안 총 25종의 판본이 간행되어 전체 93%를 차지할 정도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18세기에 간행된 판본은 1701년 봉암사에서 간행된 1종에 불과할 정도로 급격하게 쇠퇴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16세기와 17세기의 200년간 간행된 25종의 판본 중에서도 16세기 후기와 17세기 전기의 100년간 간행된 판본의 수는 모두 20종으로 『절요』의 주류를 이룬다. 이는 16세기 이후 국가나 왕실에 의한 불서 간행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으며, 사찰 자체적으로 開板 불사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16세기 후반에 『절요』가 사찰 강원 이력과정의 사집과 교재로 확립되어 다른 사집과의 교재와 함께 체계적으로 간행되었다. 또한 선조가 재위한 1567년부터 1608년의 40년 동안 16세기의 불서 간행량의 절반에 가까운 불서가 간행될 정도로 선조의 재위기간 동안에는 불서 간행이 특히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절요』의 판본 역시 선조 재위기간 중 총 10종의 판본이 간행되었는데 이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의 100년간 간행된 20종의 판본

중 절반에 달하는 비율로 선조의 재위기간에 불서의 간행이 집중되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불교의 사집과 교재인 『절요』 또한 선조 재위기간 동안 현전하는 판본의 37%가 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6세기 이후 18세기 전반까지 조선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小水期’로 기온강하, 자연재해, 이상기후, 전염병 현상이 발생한 건수가 1501년부터 1550년 사이에 6,109건, 1551년부터 1600년까지 4,785건, 1601년부터 1650년까지 3,300건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시기의 두 세배에 달하는 양으로, 1451년부터 1500년까지 1,420건 정도가 기록된 것과 비교해 볼 때, 16세기부터 17세기는 다른 시기보다 자연재해, 이상기후, 기근, 전염병 등으로 국가가 고난을 겪고 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¹¹⁾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불서간행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은 국가의 불교정책이 변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佛心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려 하는 종교적 대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고난의 시기동안 사찰에서 지속적으로 간행된 불서를 통해 학습한 불교사상은 이후 18세기 화엄교학의 성행, 강학과 주석서 편찬의 성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3.2 형태별 분석

형태적 분석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판식분석의 요소로는 四周의 邊欄 형태, 界線의 有無, 板心에 나타나는 魚尾와 板心題, 黑口와, 行字數의 특징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적 분석의 기본 요소를 기준으로 조선시대 간행된 『절요』 판본 27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1) 남희숙, “16~18세기 佛教儀式集의 간행과 佛教大衆化,” 『한국문화』 제34집(2004), 138-140.

3.2.1 변란

邊欄은 네 둘레에 나타나는 검은 선을 지칭하며 匡郭으로 불리기도 한다. 『節要』의 변란은 사주단변과 사주쌍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간혹 혼용되거나 판본 인쇄의 상태에 따라 구분이 모호하기도 하나, 하나의 판본에서 확인되는 가장 주류의 변란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7> 邊欄의 형태분석

邊欄의 種類	刊行年	板本	種數
四周單邊	1486	圭峰庵本	23종
	1537	神興寺本	
	1554	楡岾寺本	
	1570	神光寺本	
	1574	西臺寺本	
	1576	觀音寺本	
	1578	月精寺本	
	1582	上院寺本	
	1588	雲門寺本	
	1604	能仁庵本	
	1608	松廣寺本	
	1618	栗寺本	
	1623	清溪寺本	
	1628	龍腹寺本	
	1633	釋王寺本	
	1635	龍藏寺本	
	1639	天冠寺本	
	1647	普賢寺本	
	1662	表訓寺本	
1680	普賢寺本		
1681	雲興寺本		
1686	澄光寺本		
1701	鳳巖寺本		
四周雙邊	1570	解脫寺本	4종
	1579	神興寺本	
	1583	普賢庵本	
	1612	內院庵本	
총			27종

상기의 <표 5>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四周單邊으로 판각된 판본은 23종이며 四周雙邊의 판본은 4종에 불과할 뿐이다. 사주단변을 갖는 판본의 개수가 사주쌍변 판종의 약 6배로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2 판심

조선 사찰본 『절요』의 판본에서 확인된 黑口는 상하대흑구와 간혹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흑구가 있다. 魚尾의 경우에는 상하흑어미와 상하향흑어미, 상하2엽화문어미, 여러 문양이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혼용어미, 무어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²⁾ 어미와 흑구의 배치에 따라 판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8> 板心の 특징분석

板心		刊行年	板本	種數
上下大黑口	上下黑魚尾	1579	神興寺本	2種
		1582	上院寺本	
上下黑魚尾		1486	圭峰庵本	9種
		1537	神興寺本	
		1570	神光寺本	
		1570	解脫寺本	
		1574	西臺寺本	
		1576	觀音寺本	
		1578	月精寺本	
		1583	普賢庵本	
		1623	清溪寺本	
上下向黑魚尾		1554	楡岾寺本	1種
上下2葉花紋魚尾		1604	能仁庵本	4種
		1612	內院庵本	
		1681	雲興寺本	
		1701	鳳巖寺本	

12) 上下向黑魚尾를 제외하고 모두 위 아래로 內向의 방향성을 가졌기 때문에 명칭에서 內向은 생략하였다.

板心		刊行年	板本	種數
多葉混用魚尾	上下2葉花紋魚尾(主)	1588	雲門寺本	11種
	混用	1608	松廣寺本	
	上下2葉花紋魚尾(主)	1618	栗寺本	
	上下花紋魚尾(主)	1628	龍腹寺本	
	上下黑魚尾(主)	1633	釋王寺本	
	混用	1635	龍藏寺本	
	混用	1639	天冠寺本	
	上下2葉花紋魚尾(主)	1647	普賢寺本	
	混用	1662	表訓寺本	
	上下花紋魚尾(主)	1680	普賢寺本	
	上下黑魚尾(主)	1686	澄光寺本	
총				27種

위의 <표 6>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흑구가 나타나는 판본 2종에 불과한데, 모두 상하대흑구와 상하흑어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임란 이전에 간행된 판본의 특징을 여실히 보이고 있다. 흑구가 나타나지 않는 판본 중 상하흑어미를 가지는 판본은 9종, 상하2엽화문어미를 확인할 수 있는 판본은 4종이며 여러 어미의 모양이 혼합적으로 사용된 혼용어미로 판단되는 판본은 11종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상하향흑어미를 확인할 수 있는 1554년 유점사에서 간행된 판본은 독특한 어미를 갖는 유일본으로 주목된다.

관심사항 중 확인된 板心題는 총 2가지 종류로 ‘私記’와 ‘節要’로 구분할 수 있다. 관심제가 ‘私記’로 기재된 판본은 26종, ‘節要’로 기재된 판본은 1종으로 관심제가 ‘私記’인 판본이 주류를 이룬다. 관심제가 ‘節要’로 기재된 판본 1종은 1701년 간행된 봉암사본으로, 靄峰 淨源이 회양산 봉암사에 있을 때 『도서』와 『절요』의 科文을 지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상봉 정원이 ‘節要’라 약칭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2.3 행자수

조선 사찰본 『절요』의 行字數는 8行 19字, 9行 20字, 10行 20字 및 21字, 11行

21字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행자수의 유형별로 대상 판본을 구분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10> 行字數의 유형분석

行字數	刊行年	板本	種數
8行 19字	1583	普賢庵本	1종
9行 20字	1579	神興寺本	17종
	1582	上院寺本	
	1588	雲門寺本	
	1604	能仁庵本	
	1608	松廣寺本	
	1612	內院庵本	
	1618	栗寺本	
	1623	清溪寺本	
	1628	龍腹寺本	
	1633	釋王寺本	
	1635	龍藏寺本	
	1639	天冠寺本	
	1647	普賢寺本	
	1662	表訓寺本	
	1680	普賢寺本	
1681	雲興寺本		
1686	澄光寺本		
10行 20字	1701	鳳巖寺本	1종
10行 21字	1486	圭峰庵本	7종
	1537	神興寺本	
	1570	神光寺本	
	1570	解脫寺本	
	1574	西臺寺本	
	1576	觀音寺本	
	1578	月精寺本	
11行 21字	1554	楡岾寺本	1종
총			27종

상기의 <표 7>에 보이는 바와 같이 8행 19자 1종, 9행 20자 17종, 10행 20자 1종, 10행 21자 7종, 11행 21자 1종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주류를 이루는 행자수는 17종의 판본이 해당되는 9행 20자로 이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까지

집중적으로 간행된 판본을 포함한다. 8행 19자의 행격을 갖는 1583년 보현암에서 간행된 판본과 10행 20자의 행자수를 보이는 1701년 봉암사에서 간행된 판본은 각각의 행자수에 해당되는 유일한 판본으로 특이하다. 10행 21자의 행자수가 확인되는 판본은 총 7종으로 15세기 1종을 제외한 6종이 모두 16세기의 판본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의 판본이 가지는 특징적인 행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판본으로는 행자수가 11행 21자인 유점사본(1554년)이 주목된다. 이와 동일 계통의 판본으로는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영광 불갑사 팔상전의 복장 전적 중 14세기 후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본이 있다. 이 고려본이 유점사본과 동일한 행자수를 보이고 있어 조선시대 가장 먼저 간행된 1486년 규봉암본 보다 오히려 고려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려본 『절요』의 卷首題 字體와 유일하게 11행본계인 유점사본의 권수제 자체가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불갑사에서 발견된 고려본이 1554년에 개판된 유점사본의 상위 계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계통별 분석

3.3.1 9행본계

9행본계의 경우 총 17종의 판본이 해당될 정도로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전체 판본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뿐만 아니라 이 17종의 판본이 모두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된 것으로 볼 때, 당시 사찰에서 승려의 강학 교재를 확보하기 위해 활발하게 간행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때 『절요』 또한 다른 불서들과 함께 강학 교재로서 다수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9행본계에 해당되는 판본의 간행 지역을 살펴보면, 경상도 5종, 전라도 5종, 경기도 2종, 강원도 1종, 충청도 1종, 평안도 2종, 함경도 1종으로 확인되어 황해도 를 제외하고 7도에서 모두 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사찰의 불서 간행 사업이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난 현상이 아니며 전국적으로 널리 이루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3.3.2 10행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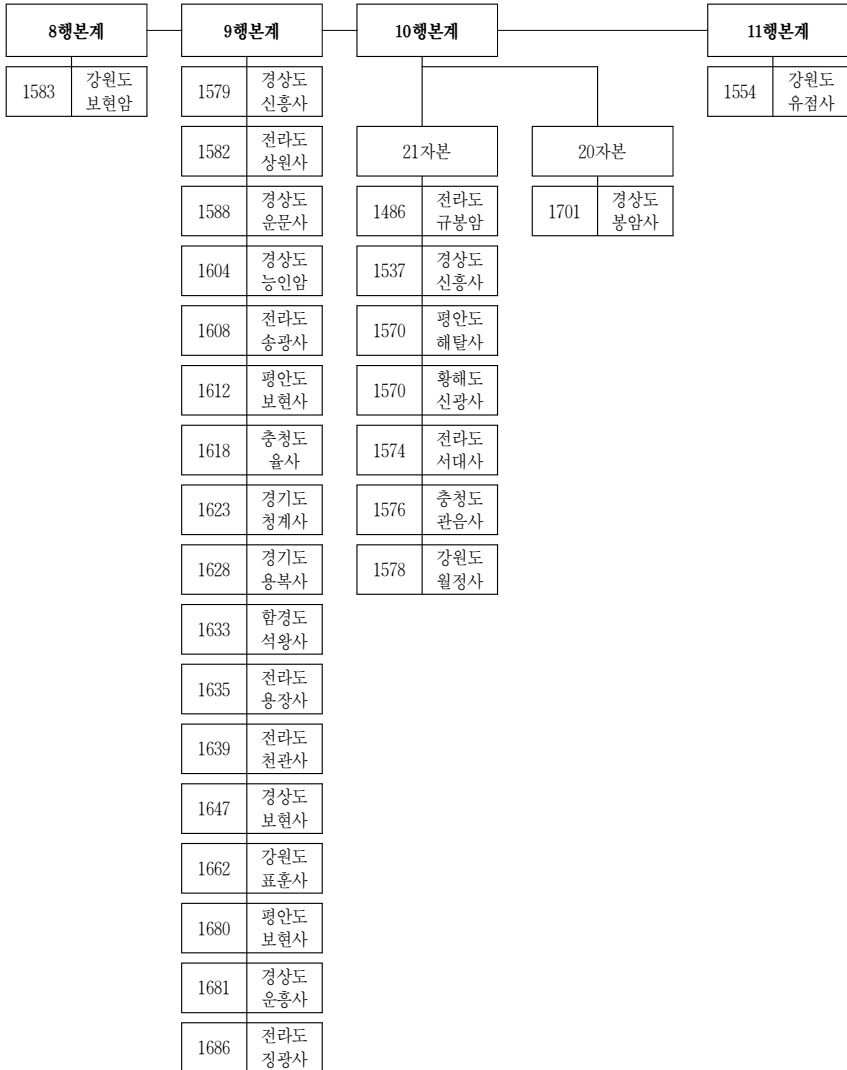
10행본계의 경우 총 8종의 판본이 해당되는데 字數로 나누었을 때 8종 중 7종이 21字의 계열에 해당되며, 1종만이 20字 계통으로 구분된다. 10행본계의 21자 계열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판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486년에 개관된 규봉암본부터 1537년 신흥사본, 1570년 해탈사본, 1570년 신평사본, 1574년 서대사본, 1576년 관음사본, 1578년 월정사본이 해당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10행본계의 21자 계열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개관된 계통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권수의 ‘私記序’가 1486년 규봉암본, 1570 해탈사본, 1574년 서대사본, 1576년 관음사본에서 모두 발견될 정도로 유사한 형태적 특징을 드러낸다. 그리고 7종의 판본이 간행된 지역은 계통에 속하는 판본의 수가 7종에 불과한 것에 비해 간행된 지역이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황해도의 6도로 여러 지역에서 널리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절요』의 간행이 일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보인다.

10행본계의 20자 계열에는 1701년 경상도 문경 봉암사에서 간행된 판본이 단독으로 해당되는데, 1701년 봉암사에서 간행된 판본의 경우 연구대상 판본 중 가장 늦은 시기에 간행된 판본이며 1행의 字數가 21자이며, 界線이 책 전체에 분포하는 것, 판심제가 다른 판본들과 달리 ‘節要’인 것, 상봉 정원이 分科를 붙인 판본이라는 것 등 형태적인 부분에서 상이한 점이 다수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행수를 통해 10행본계로 편성되었으나 단지 1종에 불과하여 독립된 계통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이상과 같이 행자수를 토대로 『節要』 판본의 형성 계통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8행과 11행본계는 각각 1종에 불과하여 주류로 볼 수 없으며, 9행본계 17종, 10행본계 8종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류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 조선시대 초간본인 전라도 규봉암본 계통은 임난 이전에 주로 개관되었으며, 임난 이후로는 9행본으로 재편된 신흥사본 계통이 주류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9행본과 10행본을 중심으로 계통 간에 판본의 형성 관계를 도식화해 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법집별행록절요사기』 판본의 系統圖

4. 결 론

이상으로 조선시대에 간행된 『節要』의 현전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조선시대 전국 사찰에서 개관된 『節要』의 판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먼저 사집과와의 간행현황을 비교하여 파악하였다. 그 결과 『節要』 28종, 『都序』 29종, 『禪要』 29종, 『書狀』 26종이 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대체로 28종을 기준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1500년대 초반 경상도 지역의 신흥사에서 사집과 불서가 모두 간행된 것을 시작으로 점차 한 사찰에서 사집과 불서 중 2종 이상이 개관되었던 사실을 볼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1603년-1604년 경상도 능인암에서 대규모 개관불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일환으로 사집과 불서도 전부 일시에 간행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18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는 당시 불교계에서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일반불서의 간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과도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절요』를 비롯한 사집과 불서는 강원교육의 강화라는 일정한 의도 아래 지속적으로 개관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조선시대 전국 사찰에서 간행된 『절요』는 현재까지 모두 27종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간행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조선 전기에 13회, 조선 후기에 14회의 간행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기까지의 100년 동안 각각 10회씩 20회의 간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총 27회의 간행 중 전체 74%나 차지한다. 특히 선조 재위기간 동안 총 10회의 간행이 이루어져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간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세기부터는 이전 시기와 달리 한 사찰에서 불서 간행 사업의 일환으로 四集科 불서를 讀書의 순서대로 일시에 간행하였던 현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1603년부터 1604년 사이 간행 불사가 있었던 경상도의 쌍계사(능인암)와 1608년의 전라도 송광사, 1623년 경기도 청계사, 1628년 경기도 용복사, 1635년 전라도 용장사, 1647년 경상도 보현사, 1681년 경상도 운흥사, 1686년 전라도 징광사 등의 사찰에서 沙彌

科, 四集科의 教材에 대한 일시적인 불서 간행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16, 17세기에 집중된 불서 간행 양상은 승려들의 강학에 큰 영향을 주어 이후 17세기 후반 불교 증흥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전본 『절요』를 간행 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경상도 7회, 전라도 7회, 강원도 4회, 경기도 2회, 충청도 2회, 평안도 2회, 함경도 1회, 황해도 1회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경상도와 전라도의 간행이 14회로 총 간행의 5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국 팔도의 사찰에서 널리 간행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개관이 집중되었던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의 100년 동안 간행지역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전라도 5회, 경상도 4회, 강원도 3회, 경기도 2회, 충청도 2회, 평안도 2회, 함경도 1회, 황해도 1회 등으로 분석되어 전국에서 고르게 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황해도부터 전라도와 경상도까지 널리 간행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절요』가 승려들의 강학과 수행에 중요한 교재로 널리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판식의 특징을 邊欄과 板心, 行字數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판심의 경우에는 黑口의 有無와 魚尾의 형태, 板心題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변란은 사주단변이 23종, 사주쌍변이 4종으로 확인되어 광곽이 단변을 이루는 판본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조선시대를 구분 짓는 중요한 시점인 임진왜란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시기적 구별 없이 변란에서 단변과 쌍변이 판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사주쌍변에 평안도에서 간행된 판본이 2회 모두 포함되는 것을 볼 때 북한지역에서 간행된 판본은 동일한 계통의 판본을 저본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黑口는 총 2종의 판본에서 확인되었는데, 그 중 1579년 경상도 신흥사와 1582년 전라도 상원사에서 간행된 판본에서는 대흑구와 상하흑어미를 확인하였다. 黑口가 없는 나머지 24종의 판본에서 권수제면과 대체적으로 많이 보이는 어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상하흑어미 9종, 상하2엽화문어미 4종, 다엽혼용어미 11종, 상하향흑어미 1종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 상하흑어미이거나 혼용된 어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상하흑어미는

16세기 후반에 간행된 판본에서 확인되었고 혼용된 어미는 주로 17세기에 간행된 판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판심제는 26종에서 ‘私記’로 기재되었고, 1701년 경상도 봉암사에서 간행된 판본에서 유일하게 ‘節要’로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01년도 봉암사본의 경우 봉암사 간행에 큰 역할을 한 상봉 정원의 영향을 받은 특수한 사례로 판단된다. 행자수의 경우 8행 19자 1종, 9행 20자 17종, 10행 20자 1종, 10행 21자 7종, 11행 21자 1종으로 나타나 9행 20자로 배자된 판본이 전체 판본 27종 중 약 63%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주류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지역별·시기별 분석과 판식의 형태적 분석을 종합하여 『절요』의 계통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게 8행본계, 9행본계, 10행본계, 11행본계의 네 가지 유형의 계통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8행본과 11행본의 경우는 1종에 불과하여 계통 과정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그 외 9행본과 10행본이 주류 계통을 형성하였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9행본 계통의 판본은 신흥사본 등 모두 17종으로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까지 집중적으로 개판되었으며, 10행본 계통은 21자본의 경우 『절요』의 판본 중 조선조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된 1486년 규봉암본부터 16세기에 간행된 판본 7종이 하나의 계통을 형성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당시 강원 교육을 강화했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집중적으로 사집과 불서가 간행되면서 주요 판본이 계속해서 저본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주류 계통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조선시대에 간행된 『절요』 판본 27종을 대상으로 판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서 판본 간의 주요 계통을 파악해 보았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판본만을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현전하는 고승의 주석서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향후 고려본 『절요』와 비교 연구, 조선시대 고승들의 『절요』에 대한 주석서를 비롯하여 사미과와 사집과에 해당되는 불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희숙. “韓國佛教 講院教材의 刊行에 관한 연구: 沙彌科와 四集科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영선. “高峰和尚禪要 板本考.” 『서지학연구』 제14집(1997). 161-212.
- 김용태. “조선후기 중국 불서의 유통과 사상적 영향.” 『보조사상』 41권(2014). 198-243.
- 김종명. “지눌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에 미친 초기 선종서의 사상적 영향.” 『보조사상』 11권(1998). 135-190.
- 노기춘. “順天 松廣寺 開板佛事に 관한 연구 (II) - 壬亂以後 有刊記 佛書를 中心으로.” 『서지학연구』 제26집(2003). 303-346.
- 박상국.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를 通해본 普照의 禪思想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75.
- 배현숙. “大慧普覺禪師書 異本考.” 『서지학연구』 제5·6합집(1990). 161-181.
- 손성필.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3.
- 손성필. “16세기 사찰관 불서 간행의 증대와 그 서지사적 의의.” 『서지학연구』 제54집(2013). 359-379.
- 송일기. “사법어의 편찬과 유통.” 『서지학연구』 제63집(2015. 9). 63-90.
- 오용섭. “영광 불갑사 복장본 강원교재 불서 연구.” 『서지학보』 제35호(2010). 183-206.
- 임영숙. “知訥의 撰述禪書와 그 所依典籍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제1집(1986). 251-267.
- 최동원. “朝鮮時代に 刊行된 禪源諸詮集都序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 한지희. “竹庵 編纂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

